#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 주력

## 무주군, 실국장 소통회의 열고 민선 7기 분야별 주요사업 점검 나서

무주군은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실국장 소통회의를 열고 민선 7기 비전인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 관광, 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군은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실국장 소통회의를 열고 민선 7기 비전인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 관광, 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무주군의 군정방침은 '건강가득 소득농업', '세계적인 으뜸관광',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으로, 소통회의 첫날 무주군은 농산물 신 유통체계 구축, 농가경영 지원 관련 사업 등 '건강가득 소득농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들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전체 인구의 40%정도가 농업인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살아야 우리 무주가 산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특화와 품질로 승부하고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벌여왔던 사업들을 되짚어 우리가 목표하던 '건강가득 소득농업'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판단해 봐야한다"며 "정책이나 사업이 그것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농가들이 실감하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2018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2019년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백억 원을 조성하는 등 농산물 신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손실액 44억여 원(38개 품목)을 보상했다. 소규모 영세농가의 농산물 유통·판매를 돕기 위해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손잡고 6개 읍·면 마을 65곳의 공동수집장을 조성·운영 중으로 지난해 1,252농가에 5억 8천여만 원의 판매수익을 안겼다.

이외에도 농업 유용 미생물을 무상 공급한 것을 비롯해 기능성비료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확대 지원(자부담 20%→10%로 경감) 반값 농기계 지원, 벼 육묘 지원을 확대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였다.

한편, 민선 7기 무주군 농업정책은 농가에서 생산을 맡고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상품화와 유통, 판매를 책임지는 체계로 일관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의 증가, 관내 농협 산지유통센터 상품화 시설 지원을 통한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유통의 전문화, 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만족도를 높여왔다.

황인홍 군수는 "농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 외에도 무주만의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특화·전략품목의 육성과 친환경농업 실천, 품질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한다"며 "애지중지 키운 무주농산물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제 값까지 받아 농업인들에게 보람과 소득으로 안겨질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은 공유된 내용과 의견들을 토대로 농업정책과 사업을 되짚어 내실을 기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도 소통회의를 통해 심층 점검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청년들과 소통 나서

## 장영수 장수군수, 청년농업·주거 문제 등 이야기 나눠

장영수 장수군수가 20일 '장수청년, 묻다'라는 주제로 지역 청년들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군수는 이날 청년들과 장수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농업, 교육,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 군수는 "취임 당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청년조례'였으며, 청년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 가장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수군 인구현황을 살펴봤을 때 70대 이상 5,600명, 60대 4,300명, 50대 3,600명에서 40대 2,450명으로 급감하고 있어 40대까지 청년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청년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현재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설치비, 부대시설, 스마트 팜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신설할 경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부터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장수군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장수군에서 농업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귀농귀촌인이나 청년들이 주거할 곳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수군의 주거부족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군에서는 LH와 협의해 내년 장수읍, 장계면에 각각 120세대, 14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임대아파트인 만큼 관내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 등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 주거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장수청년 '산사공'은 '산촌으로 온 뱃사공으로 귀농 귀촌인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힘을 합쳐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찾고, 길을 환하게 밝히다'라는 의미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장수군 관광두레PD, 전북청년정책포럼단, 동화작가, 청년지역활동가, 교육네트워크 활동가, 청년 가수, 공연기획자 등 장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함께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농·특산물 특화장터 진행

청정 무주의 신선한 농·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인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2회 농·특산물 특화장터가 무주반딧불시장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열려 무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신선한 무주산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화장터는 무주군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라북도가 주최한다.

농·특산물 특화장터는 무주의 대표 특산물인 천마를 비롯해 산과 들에서 채취한 각종 약초를 비롯한 나물, 버섯과 견과, 사과, 과일, 고추 고수, 호두, 머루로 만든 와인, 농산물 가공식품 등이 판매·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다양한 농·특산물판매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유튜브 영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부상 에누리 이벤트(저렴한 가격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농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선정

진안군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기계임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1개소 신축(12억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2개소(4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 농기계 구입비용(4억원) 등이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부귀면 거석리 일대에 농기계 사업소를 개설하게 돼 그동안 농기계 임대에 불편을 겪었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기계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인삼 판로확대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진안군·농협진안군지부, 31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서

진안군과 농협진안군지부는 진안인삼농가들의 인삼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진안인삼 판로확대·소비촉진 직거래장터'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와, 관내 5개농협(전북인삼 신인성, 진안 허남규, 백운 신용빈, 부귀 김영배,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과 정미경 군지부장 등 행정·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행사장을 찾아 고객을 대상으로 진안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삼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인삼 직거래장터행사는 원삼류(몸통이 굵고 가지런함) 4,900원/100g, 난발류(자유롭고 다양함) 3,900원/100g으로, 유통가보다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10만원 이상 구매시 삼계탕 재료(4,000세트)를 증정한다.

신인성 조합장은 "수삼가격 하락으로 힘든 인삼 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직거래 장터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이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삼수출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증가와 최근 몇해 이상기후로 인삼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인삼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경 지부장은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인삼을 통해 면역력도 올리고 코로나19로 지친 피로도 회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지원을 통해 전북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과 최화식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7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결과에서 '다양한 시설 구축에 따른 명확한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등 개선요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복)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군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2022년 신규시책 검토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21일 전춘성 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규시책 검토 보고회를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시책으로 채택된 36건에 대해 군정운영 방향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다.

군은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책발굴에 나섰으며, 총 145건의 시책이 제안됐다.

이 중 추진 부서의 검토를 통해 총 36건을 채택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채택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